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사무총장박주현변호사(010-5687-0926)
대 변 인 유정화 변호사(010-8500-8756)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추장관은,휴대전화 비번 강제해제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법치파괴, 사법교란 시도는 그 끝이 어디인가

추장관이 엊그제 이른바 채널A사건 관련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천부당 만부당하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이며 가장 핵심적 장치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역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 한변은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인 적개심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도외시하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수 없으 며, 동 지시를 즉각 철회함과 아울러 국민들에 대해서도 진솔한 사과를 함께 요구한다.

2020. 11.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겸 공익소송지원센터장 석동현